기획 연재

孝와 烈에 관한 瞑想 ⑲

權 五 焄
本紙편집인

144 도잠불사陶潛不仕

도잠陶潛은 자가 연명淵明이어서 도연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진晋나라 심양尋陽의 시상柴桑 사람이다. 혹은 그 이름이 연명淵明이고 자가 원량元亮이라 하고 혹은 이름이 심명深明이라고도 한다. 그는 소시부터 지취志趣가 고결하고 영리榮利를 기리지 않아서 시속時俗에 능히 부앙俯仰하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그의 시詩는 충목담아沖穆澹雅하고 문장 또한 초일고고超逸高古하였다.

도잠은 처음에 주州의 좨주祭酒가 되었다가 뒤에 팽택彭澤이라는 곳의 영令이 되었다. 그 자리에 있은 지 80여일에 군郡에서 독우督郵[군의 태수太守를 보좌하는 순찰관巡察官]를 파견했다 하는데 현리縣吏가 청하기를 독우가 이르면 응당 속대束帶[예복을 여미는 혁대]를 하고 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자 도잠이 탄식하기를‘ 내가 어찌 오두미五斗米[닷 말의 쌀]를 위해 향리鄕里의 소아小兒를 향해 허리를 꺾을소냐 ’하고 즉일로 인수印綬를 풀어놓고 떠났다.

뒤에 유유劉裕가 진晋나라의 제위帝位를 선위禪位받는 식으로 찬탈하여 즉위하자 이성二姓[다른 두 성씨]을 섬기는 것을 부끄러이 여겨 다시는 벼슬하지 않았다. 송宋[남조송南朝宋]의 문제文帝[남조송의 제3대 황제 유의륭劉義隆] 때에 특별히 저작랑著作郞 벼슬로 징소徵召하였으나 나와 이르지 않고 죽은 뒤에 정절징사靖節徵士의 시호諡號를 받았다.

이로써 세상에서 그를 정절선생靖節先生이라 불렀고 그가 팽택령의 인수를 풀어놓고 떠나면서 지은 귀거래사歸去來辭는 유명하다. 제목 도잠불사陶潛不仕는 도잠이 벼슬하지 않았다는 말이고 그 찬시讚詩는 다음과 같다.

유공지상진청수惟公志尙儘淸修 : 오직 공의 고상한 뜻으로 맑게 닦기를 다하며
수속부침최가수隨俗浮沉最可羞 : 세속 따른 부침을 가장 부끄러워해
해인표연부귀거解印飄然賦歸去 : 인수 풀고 표연히 귀거래사 읊었네
낙천지명갱하구樂天知命更何求: 천명을알고즐김에다시무엇을구하리오
정심고절독초군貞心苦節獨超群 : 곧은 마음 힘든 절개로 홀로 무리에서 솟으니
기위영명사이군豈爲榮名事二君 : 어찌 이름이 영화롭고자 두 임금 섬기랴
학조특징종불기鶴詔特徵終不起 : 맑은 조서로 특별히 불러도 종내 일어나지 않으니
한청천재파청분汗靑千載播淸芬 : 청사에 맑은 향기 천년토록 풍기누나.

145 원유명의袁劉名義

중국 남조송南朝宋 나라 때 이야기이다. 소도성蕭道成이 군국軍國의 모든 일을 겸총兼摠하여 힘센 심복을 두루 배치해 놓고 사람에게 주고 빼앗는 것을 오로지하는데 상서령尙書令 저연褚淵이 평소에 서로 빙부憑附하면서 결탁이 되었다. 이에 임금 순제順帝가 중서감中書監 원찬袁粲에게 조명詔命하여 나라의 요충인 석두石頭를 진수鎭守케 하였다.

원찬은 성품이 충정沖靜하여 매양 조정의 명이 있어도 벼슬을 받지 않고 고사하였는데 이번에는 부득이하여 직에 나아갔다. 이에 이르러 소도성에게 신하 노릇을 아니할 뜻이 있어 몰래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는 명을 받는 즉일로 상서령尙書令 유병劉秉과 더불어 소도성을 주살할 것을 모의하였다.

소도성이 이를 듣고 군주軍主[1군軍의 장수] 소열蘇烈 등을 보내 병력으로 석두를 지키는 원찬을 돕게 하고 다시 또 대승정戴僧靜을 보내 수백인을 거느리고 석두에 가서 소열을 돕게 하였다. 원찬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온 소열과 대승정이 아울러 원찬을 공격하는데 대승정이 군사를 나누어 석두부石頭府의 서문西門을 공격하고 불을 질러 태웠다.

원찬이 성에서 내려와 촛불을 열지어 밝히고 스스로 비치면서 그 아들 원최袁㦷에게 말하기를 ‘ 본디 나무 하나로 큰 집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알지만 다만 명분과 의리가 여기에 이른 것이다 ’하였다. 대승정이 어둠을 틈타 성을 넘어서는 홀로 진격해오니 원최가 이를 발각하고 제몸으로 그 아버지 원찬을 막았다. 대승정이 직진하여 찌르자 원찬이 아들 최에게 ‘ 나는 충신임을 잃지 않고 너는 효자임을 잃지 않았다 ’하고 드디어 함께 죽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성이 노래를 지어 부르기를 ‘ 가련하도다, 석두성이여. 어찌하여 원찬이 죽고 저연을 살게 하였는가 ’하였다. 유병의 부자도 뒤쫓는 자들에게 살해되었다.

소도성蕭道成은 남란릉南蘭陵 사람으로 자는 소백素伯이며 성품이 깊고 침착하여 큰 국량局量을 지니고 있었다. 경사經史에 달통하고 글을 잘 지었으며 남조송南朝宋의 무제武帝 때 그 아버지의 작위를 승습하여 진흥현남작晋興縣男爵이 되고 폐제廢帝 때 거듭 군공軍功을 세워 진군장군鎭軍將軍에 공작公爵이 되었는데 황제가 무도하자 시해하고 순제順帝를 영립해서는 상국相國이 되어 구석九錫을 받고 제왕齊王에 책봉되었다. 곧이어 제위帝位를 선양禪讓받아 황제가 되어 국호를 제齊로 하고 건강建康에 도읍하여 순제를 여음왕汝陰王으로 강등시켰다가 미구에 다시 시해하고 남조송의 종실宗室을 도륙하였다. 재위는 4년이고 묘호廟號는 태조太祖이며 곧 남제南齊의 고제高帝이다.

저연褚淵은 남제南齊의 양적陽翟 사람으로 자는 언회彦回인데 의모儀貌가 아름답고 청예淸譽가 있어 남조송 무제武帝의 공주에게 장가들어 부마駙馬가 되고 상서우복야尙書右僕射를 배하였다. 명제明帝가 죽으면서 중서령中書令인 저연과 원찬袁粲에게 유조遺詔를 내려 함께 고명顧命을 받아 어린 황제를 협보協輔케 하니 검약에 크게 힘써 백성의 신뢰를 받았다. 저연은 소도성蕭道成이 비상한 사람임을 알고 명제의 고명을 받을 때 끌어들여 같이 참예케 했으며 소도성이 다른 뜻을 품고 있어 원찬이 이를 공격코자 할 때 그 모의를 누설하여 원찬이 패하게 하였다. 원찬이 죽고 소도성이 즉위하여 남제의 고제高帝가 되자 저연은 남강군공南康郡公에 봉해지고 상서령尙書令이 더해졌는데 세상에서 명절名節이 없다고 욕했으나 남제의 무제武帝 때 사공司空에 표기장군驃騎將軍이 되고 죽어서 문간文簡의 시호를 받았다.

원찬袁粲은 남조송의 양하陽夏 사람으로 초명은 민손愍孫 자는 경천景倩이며 배우기를 좋아하고 청재淸才가 있으며 일찍부터 조행操行으로 이름이 알려졌다. 명제明帝 때 거듭 벼슬이 올라 상서령尙書令이 되고 저연褚淵과 함께 명제의 고명顧命을 받아 어린 순제順帝를 보필했는데 소도성蕭道成이 바야흐로 혁명을 일으키려 하자 이를 막아 조당朝堂에서 소도성을 제거하려다가 저연의 누설로 실패하여 석두성石頭城에서 아들과 함께 죽어 세인을 애달프게 하였다. 유병劉秉은 자가 언절彦節이고 원찬과 뜻을 같이 하여 소도성을 베려다 실패하여 그 아들과 함께 피살되었다.

제목 원유명의袁劉名義는 원찬袁粲의 원씨와 유병劉秉의 유씨의 명분과 의리를 뜻하며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군권이체국장위君權已替國將危 : 임금의 권한이 이미 옮겨가 나라가 곧 위태로우니
모리하인불부시謀利何人不附時 : 이익을 도모하는 자 누군들 시세에 붙좇지 않겠는가
유유원유능분격唯有袁劉能奮激 : 오직 원찬과 유병이 있어 분격하여
공피충적욕부지共披忠赤欲扶持: 함께 붉은충성을펼쳐부지하고자하였네
부위공가자위친父爲公家子爲親: 아비는국가를위하고자식은어버이위해
석두성하공연신石頭城下共捐身 : 석두성 아래에서 함께 몸을 던지니
종연미수당시지縱然未遂當時志 : 비록 당시에는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하나
청사방명만고신靑史芳名萬古新 : 청사에 꽃다운 이름 만고에 새롭네.

146 삼강사난三江死難

중국 양梁나라 때 이야기이다. 후경侯景이 역양歷陽을 공격해 함락시키고 횡강橫江으로부터 남진南津으로 건너려 하였다. 그러자 교위校尉 강자일江子一이 주사舟師[수군水軍] 1천여인을 거느리고 하류에서 맞아 싸웠는데 그 부하 동도董桃가 살아 도주하므로 강자일 또한 탈신해 돌아왔다.

이윽고 성이 포위되자 승명문承明門을 열고 출전하여 강자일은 그 아우 좌승左丞 자사子四와 동궁주수東宮主帥 자오子五와 더불어 백여인을 거느리고 직진해 나아가니 적은 갑옷을 입고 굳게 움직이지 않았다. 강자일이 창을 들어 찌르자 적이 돌기突騎[돌격 기병]를 풀어 무리가 한꺼번에 압축해 들어왔다. 강자일이 그 기병 하나를 찌르니 기병은 굴러떨어졌으나 창이 부러졌고 적은 그를 잡아 어깨를 갈랐다.

이를 보고 강자사와 강자오가 서로 말하기를‘ 형과 더불어 나와서 무슨 면목으로 혼자 돌아가리오 ’하고 모두 투구를 벗고 적에게 달려갔다. 강자사는 창으로 가슴이 꿰뚫려 죽고 강자오는 목이 찔려 돌아왔는데 참호塹壕에 이르러 한번 통곡하고 절명하였다. 이윽고 조정에서 강자일에게는 급사황문시랑給事黃門侍郞을, 강자사에게는 중서시랑中書侍郞을, 강자오에게는 산기시랑散騎侍郞을 추증追贈하였다.

후경侯景은 남조양南朝梁나라 삭방朔方 또는 안문雁門 사람으로 자는 만경萬景이며 힘이 세고 활쏘기를 잘하였다. 북위北魏 이주영爾朱榮의 부하이다가 이주영이 고환高歡에게 토벌되자 항복하여 무제武帝 때 하남왕河南王이 되었다. 그러나 변란을 일으켜 무제를 굶겨 죽이고 간문제簡文帝를 옹립했다가 곧이어 간문제도 시해하고 스스로 즉위하여 한제漢帝라 칭하였으나 왕승변王僧辯 등에게 토벌되었다.

강자일江子一은 양梁나라 고성考城 사람으로 자는 원정元貞이고 관직은 소장군昭將軍에 의義의 시호諡號를 받았다. 후경侯景의 난에 두 아우와 함께 죽었으며 속황도續黃圖와 반고구품등班固九品等을 지었다. 제목 삼강사난三江死難은 세 강씨가 국난國難에 죽었다는 뜻이고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적기종횡함역양賊騎縱橫陷歷陽 : 적의 기병 종횡으로 쳐들어와 역양을 함락했는데
고지병력불능당固知兵力不能當 : 본디 병력으로 당할 수 없음 알면서
개문출전신구사開門出戰身俱死 : 문을 열고 나가 싸워 몸이 모두 죽으니
매읍영분지자상每揖英芬祗自傷 : 매양 영명한 향기에 읍하며 스스로 상한 것 공경하네
삼강자허진충순三江自許盡忠純 : 세 강씨 스스로 나가 순충을 다하니
임난하증석차신臨難何曾惜此身 : 국난에 임하여 어찌 이 몸을 아끼리오
견해두상흉통삭肩解脰傷胷洞稍 : 어깨 갈리고 목이 다치며 가슴이 창에 뚫렸는데
시랑포명위정신侍郞褒命慰貞臣 : 시랑으로 포장하여 곧은 신하 위로하네.

147 장승허국張嵊許國

후경侯景이 후자감侯子鑒을 시켜 오흥吳興을 침략케 하니 오흥은 병력이 적고 약한 데다 태수太守 장승張嵊이 서생이라서 군려軍旅를 부림에 능하지 못했다. 이에 혹자가 장승에게 항복하고 적을 맞아들일 것을 권했다. 장승이 탄식하며 ‘ 내가 어찌 이 난이 오래갈 것을 모르겠는가마는 다만 몸을 나라에 허락하였으니 죽는 것 밖에 두 가지 길이 없다 ’하였다.

전투에서 패하자 장승은 부사府司로 돌아와 복장을 정제하고 안좌安坐하여 기다렸다. 후자감이 그를 잡아 후경이 한제漢帝라 칭하고 도읍한 건강建康으로 집송執送하였다. 후경이 그를 살리고 싶어 하니 장승이 ‘ 내가 성城을 오

13면으로 계속